

용산 간 광주시 “군공항 이전·AI 2단계 예타 면제 시급”

강기정 시장, 대통령실 정진석·성태운 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 면담
호남 현안 소외 지적...복합쇼핑몰 예정지 인프라 확충·민생토론회 개최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을 전격 방문해 지역 현안 협조와 조속한 민생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지역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이 수두룩 한데도, 4·10 총선 전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린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개최 일정조차도 잡히지 않는 등 호남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부1비서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는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와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등에 지역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는 실증 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AI 반도체 통

합검증센터 구축을 집중 건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관련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평동 군촌연장(포사격장) 폐쇄,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강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도 정부가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에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 핵심 공약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지역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민생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축제로 승화한 5·18 아픔...59번째 ‘광주 시민의 날’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 25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민의 날은 11월1일이었지만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민의 날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5일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미리 사고 할인 받고

9월 6일까지 사전 예매...첫 구매자는 연예기획사 에스팀 김소연 대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가 시작했다. 올해 입장권 첫 구매자는 연예기획사 ㈜에스팀의 김소연 대표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5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1호 입장권 전달식’을 개최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사전 예매에 들어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예매 시작일에 맞춰 시작된 1호 입장권 구매자이벤트의 주인공은 ㈜에스팀 김소연 대표이며, ㈜에스팀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이다.

김소연 대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30주년 광주비엔날레의 1호 입장권 구매자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9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매우 기대되며 꼭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문화예술의 축적된 힘이자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의 1호 입장권 구매자가 돼주셔서 감사하다”며 “예술을 매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어

우러지는 축제의 장인 광주비엔날레가 9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광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입장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매 입장권은 오는 9월 6일까지 인터파크와 네이버에서 구매할 수 있다. 비엔날레 입장권은 어른 1만8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6000원이지만, 사전 예매권은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4000원 등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9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니콜라 푸리오 예술감독이 선임돼 판소리를 매개로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오페라적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30여개 국가의 파빌리온을 통해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전시도 경험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海 風

樂 風

바람따라 풍류따라

2024 **법성포단오제**

2024.6.7.~6.10.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

영광군·영광군의회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지부장 조기영	백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조형근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진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출	서영농협협동조합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최현규	영광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정길수	굴비골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남철	조합장 김상호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제전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자산관리 경영 인가 승인

비수도권 지방공사 최초...부동산 매입·관리·청산 등 수행

광주도시공사는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경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AMC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뒤 조차·인력·사무공간 등에 대한 현지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인가를 받았다. 비수도권 지방공사로는 처음으로 자산관리 회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대신해 투자 대상 선정,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

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주택과 도시 재생 등 신규 공공 리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거 복지 제공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경영 인가를 계기로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농업인 ‘소형 전기 운반차’ 구입비 지원

800대 한정 보조금 70%

전남지역 여성·고령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소형 전기 운반차’ 구입비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기운반차 800대 구입에 필요한 보조금 31억원을 확보, 시·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전기 운반차는 고령화, 여성화로 경운기 운전이 어려워지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수요가 많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0대

분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관리를 위한 이동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약 550만 원 정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도내 생산 제품을 위주로 보급·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여성농업인의 운반·이동 등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이달까지 다중시설 음식점 위생 점검

전남도는 27일부터 31일까지 22개 시·군과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집중 점검에 나선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호텔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카페 등 34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

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커피·음료 등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진행한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해서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대 수칙도 홍보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